“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초심으로 수행을”

천태종, 100주년 기념 법요 봉행
1월 23일 구인사 1만5000명 운집
도용 대종사 “성불 향한 발심 실천”
이 대통령 “공존 가르침 전한 스승”

단양=유재상 충청지사장



천태종은 1월 2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평생 불퇴전의 정진과 전법도생에 매진한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봉축하며 스님의 수행 정신과 교화 원력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2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스님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상장 스님,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호소노 슌카이 스님, 이헌승 국회정각회 회장,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와 천태종 신도, 사부대중 등 약 1만5000명이 동참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를 둘로 나누지 않고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 온 선지식”이라며 “평생을 중생 곁에서 교화와 실천 수행에 바친 그 원력은 오늘날까지 천태종의 큰 정신적 기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했다. 이어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과 보살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평생을 수행과 실천으로 일관하며 중생 곁에서 불법을 실천한 큰스님”이라며 “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행정진과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불교를 산중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대중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한 큰 스승”이라며 “천태종은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마다 화해와 공존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 실천을 하나로 보여준 선지식”이라며 “스님의 가르침은 종단을 넘어 한국불교 전체가 되새겨야 할 귀중한 수행 자산”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헌화하며 대충 대종사의 자비행과 원력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봉축가는 전국 천태종 각 말사 합창단이 뜻을 모아 구성된 770명으로 구성된 천태합창단이 맡아 의미를 더했다.

한편, 천태종은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전을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서 열고 있다. 1월 17일 개막해 50여 일간 계속되는 이번 기념전에는 대충 대종사의 25조 불보살상 금란가사 등이 공개된다.

“백남준, 길 없는 길 걸은 수행자”

서울 봉은사, 백남준 서거 20주기 추모재

1월 29일 법왕루서 봉행돼
원명 스님 “진실한 삶 기억”
유족, 코닥 카메라 기증키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였던 故 백남준 선생 서거 20주기를 맞아 봉은사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명 스님이 추도사를 하는 모습.

뉴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처음 개척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의 예술혼과 생애를 추모하는 자리가 서울 봉은사에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백남준 선생 2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는 주지 원명 스님, 부주지 각진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스님들과 백남준 선생의 유족,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렸다.

백남준 선생(1932~2006)은 뉴미디어 아트의 거장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린 예술가다. 그는 전위예술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 존 케이지에게 선불교의 가르침과 경험, 영감을 공유받아 불교사상과 예술 사이의 잇는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TV붓다’, ‘카르마’. ‘선(禪)을 위한 TV’ 등 불교적 세계관과 사유가 담긴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여 극찬을 받았다.

백남준 선생은 어린 시절 불자였던 어머니와 함께 봉은사를 자주 찾았으며 이 같은 불연(佛緣)으로 2006년 타계 당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그의 유작인 ‘엄마’가 공개됐고, 그의 유해 일부와 얼굴을 본 따 만든 조각상이 봉은사에 봉안됐다. 백남준 선생의 장례식과 49재 추모행사 또한 봉은사에서 열렸으며, 이후 봉은사는 매년 추모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원명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그의 치열했던 예술혼을 기렸다. 스님은 “백남준 선생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 세계를 오가며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며 “선생의 삶은 정각(正覺)을 위해 길 없는 길을 가는 구도 수행자와 다를 바 없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늘 추모재를 통해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세상에 알려주고 후학들이 새로운 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백남준 선생의 진실한 삶을 다시 기억한다”며 “선생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다한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선생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남준 선생의 조카 켄 백 하쿠타는 영상 추모 메시지를 통해 매년 추모재를 봉행하는 봉은사에 감사를 전하고 “생전 삼촌께서 사용했던 코닥 카메라를 봉은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베트남 불교계 자선 활동 지난해만 1200억 원 운용

VBS 연례회의, 사업 성과 공유
자선·복지 지속…병원 설립도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불교승가회(VBS)가 연례 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자선 활동에 공식적으로만 2조 1610억 동(한화 1188억 5500만원)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글로벌’, ‘베트남 플러스’ 등의 현지 언론은 1월 20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VBS 불교지도자 중앙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나흘간 호치민시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 성과와 새해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는 신년 하례식을 겸해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에서도 민족종교부 차관을 보내 치하했다.

22일 열린 VBS 제9기(2022~2027) 제5차 연례 평의회에서 VBS 중앙자선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틱콴툰 스님은 “2025년 중앙위원회와 시 단위 지부가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선기금과 구호 물품 등을 희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에는 2조 1610억 동(한화 1188억 5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상당한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했다”며 “특히 극심한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소외·취약계층 지원에 기금이 운용됐다”고 공개했다.

현지 언론들은 VBS의 대표적인 자선 활동으로 이재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 활동, 장학금 수여, 자선 주택 기증, 자전거와 휠체어 제공, 우물 파기, 농촌 도로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VBS는 여기에 더해 병으로 실직한 환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건강검진 및 약품 비용을 지원하고 수술비를 후원했으며, 자선 급식소 또한 개소를 늘렸다고 밝혔다. 틱콴툰 스님은 “이러한 활동들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비정신과 베트남 고유의 이웃을 돕는 전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의 핵심 목표 역시 자선과 사회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VBS는 올해 우선 과제로 모금 활동 강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시행, 까마우성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학교에 식수와 위생 시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승가복지에도 힘써 출·재가자가 협력해 불교계 병원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전국에 전통 의학 진료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VBS측은 “승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보여주는데 사회복지가 주요 책임 중 하나”라고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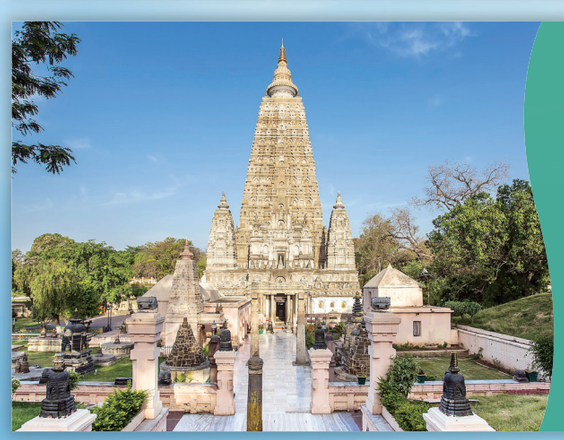
회의에 참석한 응우옌 하이 쭝 민족종교부 차관은 “이러한 활동은 베트남 불교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또 베트남 국가와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한 해 불교계의 사업을 돌아보는 평의회가 호치민시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베트남 플러스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구화산+서호 3박4일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3박4일
문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 4박5일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동참금 : 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완전일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박7일
▶출발일 : 2026년 11월 13일 ~ 11월 19일
2026년 12월 11일 ~ 12월 17일
2027년 1월 15일 ~ 1월 21일
▶동참금 : 문의
+ 양곤/바간/헤호 5박6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